

취약함의 표준 모델: 삭개오(눅6ㄱ)

성경말씀: 눅19:1-10

지난주,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멸시당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 구체적으로 전자는 바리새인, 후자는 세리
바리새인은 취약함을 감추려고 위선, 세리는 본인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간구, 하늘과 땅의 차이
어린이들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 천국, 하나님의 취약함, 아드님, 성령님의 취약함
취약함의 특징: 공감하는 것, 부부생활, 교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취약함의 표준 모델: 삭개오>

삭개오 이야기

주일학교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 노래도 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음
지난주 세리 이야기, 오늘은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삭개오 이야기

공생에 마지막 부분, 여리고의 세리장, 부자(1-2).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이름답게 살지 못하였다.

세리는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 로마에 협조, 세금 착취, 세리장, (가버나움, 예루살렘, 여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8킬로미터 떨어진 곳. 요르단 강에서 11킬로미터 서쪽에 위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빼앗은 도시. 500년 동안 폐허로 지냈고 이때에 새 여리고. 종려나무

도시, 번성해서 예루살렘 다음 중요한 도시,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었고 엘리사가 거기에 거하였다.
큰 도시이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소식의 핵심: 위선과 교만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취약한 죄인인 세리와 창녀를 용서해 주신다.
모든 동포들에게 왕따를 상하는 상황, 그분이 심히 보고 싶었다.

그런데 마침 그분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니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다. 어린이처럼
“믿음을 가지려면 호기심과 단순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힘들다.

가능한 한 어려서 구원받아야 한다. 교회 학교 교육의 중요성”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그는 키가 작았다. 그의 육신적 취약함, 그는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4)
돌무화과나무(10m)로 올라갔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부자 어른, 나무는 아이들만 올라갈
기존 성경에는 뽕나무, 무화과 뽕나무, 무화과 빛스한 열매, 그대로 이해해도 된다.

8-9년 전 이스라엘 방문, 미국인 형제, 여리고 방문, 삭개오의 뽕나무, 가장 보고 싶었다.
예수님이 돌 뽕나무 밑에 오셔서 그를 부르신다(5).

삭개오는 자기가 그분을 찾는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 오셨다. “삭개오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야기. 아담의 범죄, 가인의 범죄, 이집트, 세상,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세리 마태의 전도, 기도,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환멸, 놀라운 소문 등, 모른다.
심지어 다소의 사울처럼 교회를 극심히 핍박하던 자라도 몰라서 그런 경우 찾아주신다(딤후1:13).

다만 간절히 구해야 한다. 렘33:3, 32:27

주님께 가는 일은 지체하면 안 된다(5). 신속하게 해야 한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내려와야 한다(5). 내려와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왜 말씀하시는가?

낮추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취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18:14)

그가 급하게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임(6).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receive, 요1:12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함(7): 있을 수 없는 일,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르다.

삭개오의 회개(8)

회개에는 부당하게 대한 사람에게 대한 보상 혹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베로(출22:1

젊은 부자 청년과 대조를 이룸(눅18:18-23)

키가 작아 군중 너머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삭개오의 잘못이 아니다.

그는 그분을 보고 싶은 열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다. 그 뒤 큰 사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키가 작은 사람들(어쩌면 나의 잘못이 아니다).

문제 “작은데도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작은 것을 나무라지 않는다. 기회를 준다.

재물, 학식, 명예, 유산, 혈통, 교회 했수, 십일조, 주일 성수 등으로 자기를 큰 사람으로 착각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주님의 선포(9):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적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롬2:28-29).

그는 구원을 돈으로 사지 않았다. 그 날 그는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다. 그 뒤에 반응하였다.

최종 선언(10):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심, 딤후1:15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 세상도 신음하고 있다. 다 취약함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작고 취약한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는 어떤가?

취약함을 고백하는 방법 및 효과

삭개오와 예수님: 취약함을 인정하므로 공감하고 교제 가능, 위선과 가식, 마음 가면 배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모든 수치를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1. 자신의 원초적인 취약함은 비공개로 하나님께만 알려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인간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것이 회개,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다. 눅15의 탕자(18-19)

2.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취약함을 사람들 앞에 모두 공개하면 그것은 오히려 수치가 된다.

예: 시25:7, 약5:16

혼전 임신, 유산, 공개해서 창피를 줄 문제가 아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

3. 사람들에게 자신의 취약함을 밝힐 때에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해야 한다.

부부 관계, 고부 관계, 자식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을 지역 모임, 성경 공부 등 공적인 자리에서 밝히려고 하면 폐를 끼치는 것이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

4. 사람이나 교회에는 취약함을 이야기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경을 빌미로 강탈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요일3:16-18,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5. 진정으로 취약함을 고백하면 삭개오처럼 자동으로 섬기게 된다. 낮아지므로 다른 사람이 곧 인정한다.

6. 교회와 가정에서 이런 취약함이 고백되면 서로 공감하면서 닮는 일이 생긴다. 이것이 참된 우정 인위적으로 닮은 체 하려 하면 문제가 된다. 복장 등, 이런 것은 닮았어도 속이 닮지 않으면 소용없다.

시간이 지나도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속에 문제가 있다. 배우려고 하거나 닮으려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7.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취약함을 드러내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발전 안함.

8. 고린도후서 바울의 취약함과 고린도 교회와의 공감

고후6장 4-10, 11-13절

9. 우리 교회의 일, 목사의 일 모두 공개되어 있다. 목사가 울고 교회 부당한 일로 고통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음해를 당하고 모두 공개되어 있다. 교회의 수치(징계), 플링 등

목사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10. 킹제임스 성경 사용 신자들의 공통적인 문제: 영혼의 자유가 방종으로 가면서 간절함이 부족하다.

특히 자신의 취약하던 과거를 보고 더 큰 진리를 알았으면 삭개오처럼 실제 삶이 변해야 하는데 이 점이 심히 부족하다. 그 이유: 간절함이 부족하다. 설익어서 그랬다. 더 큰 섬김, 사랑, 희생

결론

삭개오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방문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방문에 사람이 자기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반응하자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 큰 사람이 되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물리적인 것, 몰래 행하던 사적인 것, 공적으로 지은 것)

겸손하게 나올 때 눅18장의 세리처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구원이 실제로 일어났다.